

도로시 엠 윤

(도로도로도로시 엠 윤)



The True(진실), 2007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300x110(cm) - 13 of Blondes 프로젝트 중

‘13명의 금발들’ 2005 영국으로 유학 간 후 처음으로 제작한 사진작업입니다. 히드로 공항 여권 심사대에서 한국인 여권을 가진 나는 결핵검사 엑스레이를 찍어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3-4시간 줄을 서 있으면서 한국인이raq기보다 세계인이라 믿었던 ‘나’라는 아이덴티티에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바비인형과 헐리웃영화를 보고 자란 극히 퓨전 적이고 외계인적인 저의 상상과 현실의 파워가 맞붙이게 되면서,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동양소녀들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인들인지라 사실성을 위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선택했었습니다.



13 of Blondes (13의 금발들), 2007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350x98(cm) - 13 of Blondes 프로젝트 중



The Secret(비밀), 2007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320x102(cm) - 13 of Blondes 프로젝트 중



핑크색과 소녀



Marilyn Monroe(마릴린몬로), 2007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131x84(cm)-13 of Blondes
Venus(비너스), 2007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131x84(cm)-13 of Blondes

상상과 현실, 과거의 현재, 동양의 서양, 현실성과 비현실성, 아름다움과 추함의
산물인 나의 작업은 분홍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백의 흰색도, 정열의
빨간색도 아닌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는 색, 이상하게 요상하지만 미워 할 수 없는
색, 아이도 어른도 아닌 소녀 같은 색. 여전히 나는 판타스틱 플라스틱 요지경 세상에
살고 있고 나의 작업들도 늘 그런 만화경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분홍색에 이어 '소녀'라는 콘셉트 역시 저에겐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조금은 어정쩡한 존재(?) 그렇지만 왠지 미스터리하고 상상하게 되고 또
그리워지고, 설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초능력 소녀들은 왠지 초능력 소년들 보다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요술공주
밍키나 요술공주 세리, 마법소녀 리나, 세일러 문 등은 소녀들에게 언젠가는 일상을
마법으로 만들어 줄 거 같은 상상을 가지게 합니다.



2008년 미스세인트 프로젝트 -총 8개작업

(Miss Saint Jiyo(성 지요), Miss Saint Yasmin(성 야스민), Miss Saint Alison(성 앨리슨)
-2008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100x66(cm).

분홍색과 소녀가 전반적인 저의 작업의 전반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라면 아시아 여성은 저의 실질적인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순정만화 같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 하시는 저희 어머니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은 자신을 보여주는 듯하다. 비밀을 지닌 소녀처럼 꿈꾸는 듯하고 늘 분홍색처럼 들떠 있어 보입니다.

8 of Heroines (8명의 히로인즈) 2009년



8 of Heroines(8명의 히로인즈)는 나의 왜곡된 판타지의 세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 작품이다. 그림형제의 동화책에 등장하는 8명의 금발주인공을 불교의 여신처럼 재 창조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는 단순한 판타지의 세계가 아닌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뒤얹히며,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 이다.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상징인, 금발과 푸른 눈을 한 동양 여성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동양의 전통적 풍경 이미지를 띄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동양과 서양, 현실과 이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작업은 나의 관심사가 단순히 동양 여성의 판타지 세계를 표현하는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현실과 이상, 과거와 현재 등이 서로 뒤얹히면서 새로운 문화와 의미를 생성해 내고 있는** 복합적 현대 사회에 대한 언급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Raphenzle (라폰젤), Hansel&Gretel (헨젤과 그레텔), Sleeping Beauty (잠자는 숲속의 공주), 2009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 146x100 (cm)

2011



Rococo No.336
(로코코넘버.336)

Won Gang(원광), 2011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나무액자, 160x110(cm)
- Rococo No.33b프로젝트 중

Dorothy M Yoon



- 나의 작업의 중요한 요소라 하면 분홍색과 소녀라 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의 모순과 모호성에 나는 아주 끌리고 말았다; 흰색과 빨간(분홍), 아이와 여자(소녀), 평범함과 특별함, 환상과 현실, 서양문화와 동양문화. 또한 분홍색과 소녀는 금발머리에 파란눈 그리고 분홍색 플라스틱 하이힐을 신은 바비인형을 가지고 놀던 어린시절부터 꿈꾸던, 나의 아름다움과 환상에 대한 강한 욕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 로코코 넘버33은 불교의 33명의 보살들을 로코코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옷과 소품을 제작하여서 재현한 것이다. 33인의 보살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원광은 태양,시약은 의학,육시는 시간등이다. 이 33의 숫자는 불교에서 (새해에33의 종을치듯이) 모든것을 더한숫자이며 기독교의 예수님이 돌아가실때의 나이이기도 하다.
- 보살들은 인간도 신도 아니다. 로코코는 늘 바로크와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
- 경건하고 정신적인 보살님들과 화려하고 또는 아주 물질적인 로코코의 만남은 금발에 동양얼굴을 한 소녀들처럼 어색하지만, 교차되고 교유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혼혈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선택할수 있을것이며, 다양한 선택과 모호함 그리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Yee Bee(엽의), Ji Ryeon(지련), Am Hoo(암호), 2011 년, 라이트젯프린팅+디아섹+나무액자, 150x10(cm) – Rococo No.33b프로젝트 중

At The Moment I see..., 2011년, 네온설치, 200x90(cm) – Rococo No.33b프로젝트 중

My mama told me when I was young
We are all born superstars
She rolled my hair and put my lipstick on
In the glass of her boudoir
'There's nothin wrong with lovin who you are'
She said, 'cause he made you perfect, babe'
'So hold your head up girl and you'll go far,
Listen to me when I say'



I'm beautiful in my way
'Cause god makes no mistakes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hide yourself in regret
Just love yourself and you're set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Whether you're broke or evergreen
You're black, white, beige, chola descent
You're lebanese, you're orient
Whether life's disabilities
Left you outcast, bullied, or teased
Rejoice and love yourself today
'Cause baby you were born this way
No matter gay, straight, or bi,
Lesbian, transgendered life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o survive
No matter black, white or beige
Chola or orient made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o be brave

Circus 2013



서커스#1, 2012, 144x100(c m), Archival 피그먼트 프린팅

2011년의 여름은 나에겐 크나큰 시련과도 같았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좀 큰 병이었다. 병원에서의 한 달간의 생활은 이제까지와의 세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모두 아침에 같이 일어나며 같은 옷을 입고 거의 비슷한 식사를 한다. 화장도 액세서리도 하면 안되었으며 그곳에서의 나는 내가 아닌 000호의 환자일뿐. 어찌 보면 그곳은 서커스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커스는 더 화려하게 혹은 우스꽝스럽게 화장과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다들 똑같이 생겨보이며, 마치 모든 것이 팬찮다는 듯, 재미있다는 듯 피에로들은 늘 웃고만 있다. 예전의 로코코 넘버33B작업은 나의 작업의 중요한 요소인 분홍색(순백의 흰색과 정열의 빨간색의 중간색)처럼, 아주 정신적인 동양사상인, 불교와 물질적이고 화려한 유럽의 문화사조인 로코코를 교차시키고 교유화시켜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혼혈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인데

, 그런 혼합방식을 본다면 병원에 있던 경험을 통해 서커스를 상상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와 로코코가 사상이나 사조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이번 신작과 2013작업들은 아마도 살아있는 나에 관한 것이다.

Circu#1을 보면 왼쪽의 나는 하얀 차가운 심장을 들고 있지만 그 심장은 이제 곧 피가 쏘으며 다시 붉게 뛰기 시작할 것이며, 한 방울의 피로 색깔 없었던 서커스 장난감들은 살아 날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의 나는 오른손으로 해골을 누르고 있다. 그것 역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 있음을 의한다. 실제로 나는 이 작업이 좀 식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겐 이 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의식’으로서 꼭 이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Green Circus Pierrot 페인팅이지만 캔버스에 프린팅을 한 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린그린 것이다. 캔버스에 프린팅을 해서 굳이 유화로 다시 그린 것은 사실적인 사진의 묘사를 유화로 가리고 싶었고 한꺼풀 위에 얹히고 싶었다. 마치 Circus #1작업의 흰 레이스 마스크를 눈에 쓰고 몸에 붙는 흰 레이스옷을 입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Circus Lover는 2013 Intro 시리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업이다. 나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와 나의 작가로써의 삶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사진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진에서 나는 지극히 무성(性)이다. 그러나 아마도 저 흘러내리는 침은 나의 자식과도 같은 작업들이리라.

끝으로, 내가 앞서 언급한 혼혈된 정체성에 대해 좀더 말하자면, 그런 나는 잘 비벼진 비빔밥이나 토마토 파스타 보다는 살짝 만 비벼진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스가 많아서 강렬하고 어떤 부분은 또 순수한 맛이 난다. 나는 그런 다양하고 모험심강한 맛이 좋고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기대 하지 않았던 맛 그러나 감동적인... 여러 색깔을 가진 분홍색처럼 말이다.



서커스 러버 , 2012 ,98x75(c m), Archival 피그먼트 프린팅



Baby Life is a full of fuxkin beautiful Mystery, 2012 , 96x75 (c m),네온설치



Green Pierrot, 2012 ,96x68 (c m), 캔버스에 유화